

전남도, 첨단 정밀의료산업 메카 발돋움

150억 지원 정부 공모사업 선정 화순전남대병원내 시설·장비 구축 국가첨단의료단지 조성 등 탄력

전남도는 23일 첨단 정밀의료산업 육성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원하는 150억원 규모의 '첨단 정밀의료 산업화 플랫폼 구축'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첨단 정밀의료 산업화 플랫폼 구축'은 전남도와 화순전남대병원이 기획한 사업이다. 정밀의료 분야와 함께 항암신약 및 면역세포치료제 연구 개발, 전임상·임상, 생산, 인허가 등 정밀의료 전주기

인프라를 갖춘 화순백신산업특구를 중심으로 정밀의료 국가허브 구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끈질긴 정부 설득을 통해 정부 사업에 반영했다.

정밀의료 기술은 환자마다 다른 유전체 정보를 토대로 질병의 진단에서 치료, 예측, 예방까지 최적의 진단 및 치료 방법을 제공하는 의뢰서비스다. 세계시장 규모가 연간 70조원에 이르며, 매년 15% 이상 성장이 예측되는 분야다.

전남 유치가 확정됨에 따라 민선7기 전남도가 구상하는 '블루바이오 전남' 실현과 '국가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는 올해부터 2023년까지 3년 동안 국비 100억원을 지원받게 되며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필요시설 및 장비 구축 등에 전남도와 화순전남

학교병원이 각각 20억원과 3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첨단정밀의료 산업화 지원 플랫폼 구축사업은 보건 의료 강국 실현을 목표로 하는 정부 정책의 중점 육성 분야 가운데 하나다. 인구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대두되는 암, 난치성 질환 등을 치료하기 위해 주요 보건 의료 공공기관에 분산돼 있는 보건 의료 빅데이터를 먼저 취합하고 분석해 의료진과 바이오 의료 기업이 분석 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주요 사업 내용은 첨단 정밀의료 산업화 지원 기반 조성, 인공지능 클라우드 기반 분석 지원, 시험·평가 등 전주기 임상시험 지원, 정밀의료 분야 고급인력 양성, 정밀의료 분야 기업 육성 등이다. 궁

극적으로 원스톱 정밀의료 산업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다.

특히 공공의료기관인 병원에서 수행하기에 다소 애로점이 있는 기업 육성 및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전남테크노파크가 사업에 참여한다. 주순선 전남도 전략산업국장은 "전남의 연원인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며 "화순을 백신산업 분야와 함께 정밀의료 산업의 메카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3월 중 전남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협약이 이뤄지는대로 화순전남대학교병원 내 관련 시설 및 장비 구축 등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쌀 산업 경쟁력 강화 들녘경영체 72개소 115억 지원

전남도는 농업 분야 주력산업인 쌀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올해 67개소의 들녘경영체와 5개소의 소규모 들녘경영체 등 총 72개소를 선정해 115억원을 지원한다.

들녘경영체란 규모화·전문화된 벼 재배 법인이다. 전남도는 쌀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2009년부터 들녘경영체를 대상으로 교육·컨설팅, 시설·장비 지원 등을 하고 있다.

50ha 이상의 공동 경영 면적과 25인 이상의 참여 농가를 기준으로 지원한다. 1년차에 3000만원으로 참여 농가 조직화를 위한 교육·컨설팅을 하고, 2년차에 5억 원 이내로 시설·장비를 지원해 벼 재배법인의 규모화·전문화를 유도한다. 특히 들녘경영체 증가공시, 체험장 등과 연계한 사업다각화를 바라는 법인에 50억원 범위에서 추가 지원을 한다.

올해는 도 신규사업으로 도서·산간지역 등 대규모 영농이 어려운 지역을 대상으로 소규모 들녘경영체 지원사업을 추진, 5개소를 신규 편성해 경쟁력을 갖춘 강소농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박철승 전남도 식량유통과장은 "쌀산업은 식량안보차원에서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한 만큼, 지역 여건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통해 쌀산업의 경쟁력을 높여겠다"며 "지속적인 들녘경영체 육성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쌀산업 기반을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시, 전동킴보드 무질서 바로잡는다 디어·코리아모빌리티와 업무협약

광주시는 23일 공유서비스업체인 디어·코리아모빌리티와 전동킴보드 안전한 이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시는 이들 업체와 무단 방치, 교통법규 위반 등 전동킴보드 무질서 바로잡기에 나선다. 시와 업체는 보행자의 안전과 원활한 도로교통의 흐름을 위해 전동킴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주·정차 방침을 정하기로 했다. 또 이용자가 운행 중 종료할 때 최종 주차한 상태를 촬영·제출하게 하고 방치에 어긋나는 주차가 반복되는 이용자에 대해서는 기기 이용에 제한을 준다.

민원 사항에 신속한 조치를 위해 기기에 상담 전화 또는 정보무늬(QR코드)를 표기한다. 올바른 이용 문화의 정착을 위해 캠페인과 함께 학생, 일반인을 대상으로 안전 교육을 한다. 시는 '전동킴보드 주차구역'을 설치, 무분별한 이용 문화를 바꿀 계획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그림책 100권 읽기 챌린지 23일 광주시 동구 계림1동 행정복지센터 4층 계림 꿈나무 도서관에서 '우리아이 그림책 100권읽기 챌린지'가 진행되고 있다. 행사에 참여한 동구구립어린이집 원생들이 책을 읽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광주 소방공무원 초과근무 수당 소송 12년 만에 종결 전남도, 노후 상수도 현대화 2024년까지 조기 완료

반환 금액·추가 지급수당 원금 상계

광주 소방공무원들의 초과 근무 수당 관련 소송이 12년 만에 종결됐다.

23일 광주지방법원 제1부에서 열린 시와 공무원 등 양측은 최근 법원의 화해 권고를 수용해 소송을 마쳤다. 소방 공무원들은 2009년 광주시장을 상대로 실제 근무한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책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수당을 지급해왔기 때문이다. 광주지방법은 2012년 1심 판결에서 예산 범위와 상관없이 휴게 시간과 휴일에 근무한 수당을 지급하도록 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9년 유사 사건 판결에서 휴일근무수당과 시간외근무수당은 중복 지급할 수 없다고 판결해 소송 당사자인 공무원들은 9년 전 지급받은 수당 일부와 이자를 반환할 처지에 놓였다.

반환할 수당, 추가 지급해야 할 수당을 놓고 시와 공무원들이 또다시 법리 다툼을 벌여야 하는 상황에서 양측은 재판부의 화해 권고를 받아들여 반환 금액과 추가 지급 수당 원금을 상계(相計)하는 방식으로 소송을 마무리했다. 최민철 광주지방법원 제1부장은 "그동안 많은 직원이 힘들어했지만 길었던 소송이 끝난 만큼 만큼 분위기를 쇄신해 본연의 업무에 더 충실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전남도가 상수도 유수율 향상과 수질 개선을 위해 노후 상수관로 정비, 노후 정수장 개량·재설치, 블록 불관리 시스템 구축 등 현대화사업을 2024년까지 조기 완료할 계획이다.

상수도 유수율은 정수장에서 생산해 공급된 총 송수량 중 요금 수입으로 받아들여진 수량의 비율이다. 유수율이 높을수록 누수로 손실되는 물의 양이 적다는 의미다. 상수관로에서 누수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은 내용 연수(20년 이상)가 지난 노후관로 파손 때문이다. 2019년 말 기준 전남지역 노후 관로는 전체 상수관로 2만263km 중 2724km로 13.4%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노후 상수도시설 현대화사업 추진을 위해 648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 2017

년부터 2020년까지 2413억원을 투입했다. 올해도 노후 상수관로 18개소와 정수장 5개소에 1364억 원을 들여 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한다. 노후 상수도 시설 현대화 사업이 2024년까지 완료되면 현재 75.3%인 유수율이 85%까지 올라가 가뭄 시 물 부족 문제 해소 및 연간 평균 500억원 규모의 누수 손실액을 줄일 수 있다. 녹물 발생 등 수돗물 사고를 방지해 안정적 물 공급 효과도 있다.

박현식 전남도 환경산림국장은 "노후 상수도시설 현대화사업은 맑은 물 공급과 함께 유수율 향상으로 정수장 물 생산원가를 낮춰 경영수지 개선으로 이어진다"며 "수도사업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하는 효과가 큰 만큼 조기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축사시설 현대화 432억 용자...고소득화 나서

전남도는 축사 신축·개보수, 급수·환기시설 설치 등 가축 사육환경 개선을 위해 올해 축사시설 현대화사업비 432억 원을 용자 지원한다. 지원액은 연리 1~2%, 5년거치 10년 상환 조건의 용자 346억원, 자부담 86억원이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한-미, 한-EU·연방 등 자유무역협정(FTA) 체제에 따른 축산물 시장 개방에 대응해 축산물 생산성 향상과 환경 개선으로 축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2009년 시작했다.

주요 사업내용은 축사 신축·이전·개보수, 급수·급수·전기·착유·환기 시설, 방역·방제 시설, 분뇨처리 시설, 경관개선 시설, 신재생 에너지 발전 시설 설치 등이다.

사업비는 2021년 사업 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인허가 여부, 지원내용 등을 검토해 시·군별로 배정했다. 각 시·군에서 사업대상자를 최종 확정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할 예정이다.

전남도는 지난해까지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으로 1618호에 3658억원을 지원해 축산농가의 규모화·전업화를 통한 소득증대를 꾀했다. 그 결과 2020년 전남지역 1억원 이상 고소득 농업인 5547호 중 38.1%인 2115호가 축산농가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2019년(1974호)보다 141호(7%)나 늘어난 규모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기차 환경부 무상보조 실시 중!

전기종 - 자동차용 리튬이온 배터리 장착(10년 사용), 가정용220V로 충전, 원동기 면허로 운전

에코EV102

2인승 오토바이 핸들방식
최대속도 50km
주행거리 100km

판매가격	무상보조금	도내생산보조금	본인부담금
833만원	303만원	48만원	482만원

나이스3L (캐노피 1만원)

적재중량 200kg
최대속도 47km
주행거리 90km

판매가격	무상보조금	도내생산보조금	본인부담금
650만원	330만원	48만원	272만원

나이스1L

안전필수 전복방지(틸팅) 기능
최대속도 60km
주행거리 50km

판매가격	무상보조금	본인부담금
462만원	330만원	132만원

emart 이마트 광주점(광주터미널점) 전시 중!

친환경전기차 전라남도 대표 생산기업! **DAEPOONG**
본사-공장: 전남 영광군 대마면 전기차로 133 (대마 전기자동차산업단지 내)

상담문의 **061) 352-3010 (내선2번)**
061) 872-8880, 1

고흥지사 010-2548-7111
나주대리점 010-3626-3848
장성대리점 010-2819-3546
전남 동부권역 010-2450-1954

광양대리점 010-5355-1292
함평대리점 010-2602-6051
광주·영광 010-3925-2181
전남 서부권역 010-3647-9709

전국대리점 / 취급점 문의 **010-2034-0141**